



조선대병원,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 팸투어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달 30일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사진)

3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방문단은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비롯해 중소·요양병원(광주아주병원, 강남요양병원, 에스엘요양병원, 효인재활병원, 수원담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권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요양병원의 현장 방문 및 견학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네트워크와 교육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팸투어는 △병동 내 격리병실 △재활치료실 △중앙공급실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효과적인 감염관리 활동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요양병원 방문단은 “대형병원의 감염관리 전문가와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무 책임자 간 네트워크로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역량을 증진한다면 감염 예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



전남도의회 교육 정책연구회, 중간보고회

전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추진 중인 ‘전남형 유보통합 정착 및 시설통합’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보고회에는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책임자인 송용찬 교수는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시행 국가의 사례 분석,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프로그램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설문조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박경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형 유보통합 정착 및 시설통합 방안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의 교육과 보육 환경이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북부경찰·산인공, 안전 체류환경 캠페인

광주 북부경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북구 관내 산업단지 등 외국인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체류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외국인 관련 법규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 속 범죄예방을 위한 기초 법규 홍보활동을 중심으로 5개국 통역원 등 약 60명이 참여했다. 메신저피싱 사기 예방과 이륜차 준수사항을 각국 언어로 번역한 부채와 책자, 마스크 등을 배포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외국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피싱 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예방 홍보를 펼쳤다”며 “안전한 체류환경 조성과 안전한 복구를 만드는 데 민·관·경이 합동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전남도, 추석 ‘공직자 청렴 실천 캠페인’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3일 청사 본관 입구에서 ‘청렴 실천 캠페인’을 열고 청렴한 명절 분위기 만들기 나섰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공무원노조, 감사관실 직원들이 참여해 출근길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며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직접적 직무 관련자 사이 일체 선물 수수 금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고·의례 목적으로 선물은 5만원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상품권 포함)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 기간 중 30만원까지 가능 등이다.

또한 부패 취약 시기인 추석 명절 공직자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 명절 선물은 마음으로만 주고받을 것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인재육성 장학금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3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해 이정선 교육감에게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시교육청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박병철 회장을 비롯해 이정선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병철 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40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문건설업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건설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업적을 이뤄냈다”며 “아이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사장 김성진)을 통해 지정기탁한 후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 서구, 스포츠스태킹 교실 운영 MOU

광주 서구가 (사)광주학교, 서구스포츠스태킹협회, 지역아동센터와 지난 2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신의손’스포츠스태킹교실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진)

스포츠스태킹은 겁을 빠르게 쌓고 내리는 스포츠로 눈과 손의 협응력, 반응 속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다.

특히 학생들의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생활체육 활동의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서구는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10~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 5곳에서 시범적으로 스포츠스태킹교실을 운영한다.

서구는 스포츠스태킹 교실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사)광주학교는 운영물품 및 강사비 등 재정적 지원, 서구스포츠스태킹협회는 교육강사 지원,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참여자 모집 및 교육장소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정상이 기자



동부경찰, 디페이크 범죄 예방 특별교육 추진

동부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페이크 관련 성범죄 특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 동부경찰 제공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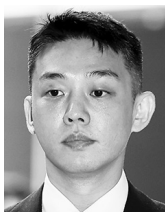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임홍식·38·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징역형을 선고한 만큼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객지혜 기자



테디표 걸그룹, 더블랙레이블 ‘미야오’ 6일 데뷔

프로듀서 테디의 첫 자체 제작 걸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야오(MEOVV·사진)’가 오는 6일 데뷔한다.

3일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에 따르면 미야오는 오는 6일 오후 6시 데뷔곡을 발매한다.

전날 더블랙레이블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된 단체 데뷔 트레일러 영상에는 황야를 가로지르는 게이트를 통과해 엘라(ELLA), 가윈(GAWON), 수인(SOON), 안나(ANNA), 나린(NARIN) 등 그동안 순차적으로 공개됐던 미야오 다섯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다.

미야오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B2F 하이츠 익스체인지에서 ‘미야오 데뷔 프리 리스닝 팝업(MEOVV DEBUT PRE-LISTENING POP-UP)’ 이벤트도 열고 있다. 팝업에선 그룹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스페셜 MD를 구매할 수 있고, 데뷔곡을 미리 청음할 수 있어 K팝 팬들의 호

응이 이어지고 있다.

미야오가 데뷔를 예고하며 테디가 프로듀싱하는 또 다른 신인 걸그룹인 ‘이즈나(izna)’와의 차별점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즈나는 CJ ENM의 자회사인 엠넷의 걸그룹 오디션 ‘아이랜드 2’와 협업해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팀이다.

한편, 블랙핑크, 빅뱅, 2NE1, 전소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작곡가인 테디는 YG엔터테인먼트 전속 프로듀서로 활약하다, 더블랙레이블을 설립했다. 더블랙레이블에는 블랙핑크 멤버 로제, 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가수 태양, 가수 전소미와 자이언티, 배우 박보검 등이 소속돼 있다. 테디는 지난 1998년 힙합 그룹 ‘원타임’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이후 프로듀서로 YG 가수들의 대표 히트곡을 양산하며 톱 프로듀서로 발돋움했다. 지난 2021년 7월엔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21세기 가장 뛰어난 프로듀서 50인’ 명단에 오른 바 있다.

객지혜 기자